



리처드 기어, 한국불교 문화에 감탄

세계적인 영화배우이자 사진작가인 리처드 기어가 6월 21일 총무원과 조계사를 방문했다. 부인 캐리 로웰, 아들과 함께 방문한 리처드 기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현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불자들의 환영 속에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자 달라이 라마의 도반으로 알려진 리처드 기어는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린 후 향을 피웠고, 법당에 마련된 원적부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적었다.

이어 리처드 기어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준비해 온 꽃다발과 티베트에서 찍은 사진을 총무원장스님께 증정했고, 스님은 도자기 향로 3개와 수련북, 염주를 선물했다.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선수행 전통에 대해 설명 들은 기어는 "일본인 스승 사사키로시 스님을 통해 선수행을 접하면서 불교를 배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첫

한국 방문에서 참배한 사찰이 조계사인데, 이곳이 선 종단인 조계종의 총본산이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각별한 인연으로 느껴진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으로 불교중앙박물관 관람과 탁본을 체험한 리처드 기어는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불교를 체험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히며 이어 전통 사찰 음식점 발우공양 '콩'에서 공양을 함께 했다.

7월 24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사진전 '순례의 길'의 행사 일정에 맞춰 가족과 함께 방문한 리처드 기어는 사진전 오프닝 행사 및 양산 통도사 등을 방문,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리처드 기어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환담 중이며, 통역은 해민스님(가운데)이 맡았다.

종단협, 日지진 희생자 위령제 봉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와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5월23일 일본 정토종 광명사에서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한·일 불교계 합동으로 거행된 위령제는 추도사와 헌화, 불교 의식 및 살풀이 등을 한국과 일본의식으로 진행하며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와 함께 지진에 따른 피해복구 성금으로 1000만엔(한화 약 1억3,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총무원 사회부장 해경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대지진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불교도의 도리인 자비실천을 넘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일본



국민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먼 길을 와 정성어린 위령법요를 봉행해줘 감사하다. 한국불자들의 큰 자비심은 일본 국민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활력을 준다."며 "동아시아 우호관계가 더욱 견고하고 깊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뜻을 전했다.

토랑 추기경, 교황청 행사에 총무원장 스님 초청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토랑 추기경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추기경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토랑 추기경은 오는 10월 교황청이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개최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에 참석해달라며 교황명의로 공식초청장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했다. 토랑 추기경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에도 교황청을 방문해주셔서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통해 종교간

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주기 바란다."며 공식 초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조계종이 오는 2013년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도 교황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토랑 추기경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한 뒤 불교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연꽃문양을 탁본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토랑 추기경은 "평생 처음으로 해본 색다른 경험이었다."면서 "색다른 체험을 하게 해줘 감사하다"고 탁본 체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7대 종단 대표와 토랑 추기경은 이날 교황대사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종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불교신문 신재호기자

국제교류위원회 상반기 회의 개최

6월 29일 총무원 본과회의실에서 국제교류위원회 상반기 회의가 개최되었다. 교류위원 진월스님, 해민스님, 이치란, 포교부장 계성스님, 사회국장 묘장스님, 권대영 주임, 권선행 주임,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보관스님, 김용태 주임, KBIN(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진서스님, 선정화 간사가 참석하였다.

상반기 보고사항으로는 WFB(세계 불교도연맹) 한국대회 진행상황, 국제팀 상반기 주요성과, 국제선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KBIN 세계일화 제작 및 발간 현황이 보고되었다. 안건으로 WFB 한국대회 향후 계획 검토, 국제팀 하반기 계획 검토, 국제선센터 활용방안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지관스님

우리는 모두가 이주민입니다.

불교는 동업중생(同業衆生)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너와 나의 차이가 없이 같은 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동업중생의 정신은 너와 나의 신분을 나누지 않으며,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국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국가를 기준으로 내국인이란 말과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차이,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주노동자, 이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라는 의미는 '이주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사람의 국가·인종·민족 등의 내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지 이주를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모두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업 역시 연기법의 일부분일 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든, 못 사는 나라에서 태

어나든 그것은 연기의 일부분이지, 그것으로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집일 뿐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인연이 바뀐다면, 우리 역시 이주민이 되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주민이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주민지원단체가 단지 이주민을 특화시켜 그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은 바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기에 돕는 것입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의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단순노무로 일하고 있으며, 차별을 받아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을 돕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켜 모든 이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주민의 인권과 복지의 향상은 한국 사회 전체의 인권과 복지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문화사회

로 나아갈지는 우리의 관심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혐오증으로 얼룩질 미래도, 문화다양성으로 더욱 발전할 미래도 우리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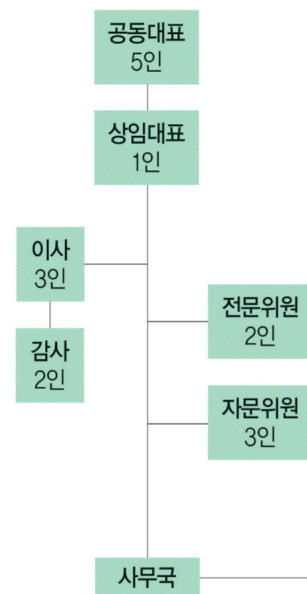
다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주민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야 할 때입니다.

글 지관스님

(김포용화사 주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산하단체(18개)

단체명	대표
국제포교사회	배 광 식
한국YBA	지관스님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봉사단	박 명 자
자비의 집	이 금 현
김포 마하 이주민 지원센터	지관스님
공감&동행	보림스님
오산 행복한 이주민센터	정오스님
안양 다문화 가족센터	수현스님
인연지기	혜경스님
여주 이주민 지원센터	세영스님
광주 아시아 밝음공동체	도제스님
해뜨는 다문화 가족복지센터	정선스님
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이 주 성
꿈을 이루는 사람들	진오스님
김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진오스님
대구 보현의 집	지도스님
대구 보현 이주여성의 집	지도스님
대구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지성스님



국제 포교의 현장 외국인인 느낀 설악산 봉정암

6월 18일 설악산 봉정암으로 향하는 비로자나국제선원 신도들은 마음이 많이 들떴다. 이번에는 특히 일요영어참선 법회에 나오는 2명의 미국인 마리와 조셉이 함께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다.

이번 주 봉정암에는 1,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가로 50cm, 세로 130cm의 넓이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기도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내자의 말을 영어로 통역을 했더니 마리는 깜짝 놀란다. 본인의 키가 180cm라는 것이다. 서양인들은 평생 각자의 방을 쓰고 공간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인데 과연 어떻게 콩나물 시루같은 상

황에서 잘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아침이 되어 물으니 밝은 모습으로 잘 잤다고 한다. 마리에게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물었다. 불사리탑의 새벽예불이 너무도 환상적이었다고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 불사리탑앞에서 전등을 들고 와 예불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스스로 불자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조셉은 이번 산행을 통해서 한국불자들의 동료애가 특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보통 미국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자기만 먹고 내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늘 내 것만을 생각한다고 한다. 함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무엇이든 나누어 먹는 것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난생 처음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과 잠을 잤는데 이상한 것은 너무도 잠을 잘 잤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불자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한다. "스님! 부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비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는 8월 19일~22일 까지 천년고찰 마곡사에서 자우스님의 제 5회 어린이 영어담마캠프를 개최합니다. 원어민, 한국인 영어선생님 그리고 스님들과 함께 불교를 영어로 신나게 배우고자 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착순 60명
초등학교 2학년 ~ 중학교 2학년
02-6012-1731



신에게 의지하는 것과 같잖아요? 부처님께 서는 수행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무엇을 해달라고 염불하는 것이 무슨 의미지요?" 헉~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국제포교를 함에 있어 한국불교를 너무 잘 포장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해도 충분히 감동을 줄만큼 우리 한국불교의 전통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불교 문화를 서양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글 비로자나 국제선원장 자우스님

국제 개발 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창립 3주년 맞아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스님)는 6월 27일 창립 3주년을 맞아 은행회관에서 이사진 및 후원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법인 삼성(대표 한명호)의 후원으로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프라미스의 세 번째 프로젝트인 동티모르 수로개설 사업(East Timor 'Water Road' Project)을 위한 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프라미스 이사장 법등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더프라미스가 국제개발 구호단체로서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미얀마와 동티모르 오지의 현지인과 직접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며, 현지인들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3년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프라미스가 3년 성상(星霜)을 지나며 이 시대의 더욱 맑고 투명한 거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더프라미스는 2008년 6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9년 2월 미국 NGO 마직(Machik)과 중국 쓰촨성에 쑤빠중학교 건립을 시작으로 오지에 학교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2009년 5월에는 본격적으로 미얀마에 지부를 설치, 학교건립과 지역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국어 선생님 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한국문화 소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색칠 동화책 보내기 캠페인을 기획 중에 있다. 이 캠페인은 오지의 아동들에게 한국의 전래동화 그림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문화기부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더프라미스의 2011년 세 번째 프로젝트로, 2월 동티모르 아수마노 마을 현지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로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후원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테마로 한국의 40~50년대와 많이 닮은 동티모르의 현재를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또한 이승림 테너와 대중가수 강민, 색소폰 연주자 황병진씨의 자선 공연으로 많은 후원자들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더프라미스는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고, 약속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CI를 발표하고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더프라미스 행복나눔팀 팀장 양혜운 02-735-3119



위드아시아, 캄보디아 브레이벵주 빈민지역 어린이 공부방운영

올해 위드아시아에서는 해외구호사업지로 캄보디아를 선정했다. 특히 지난 4월 답사가 이루어진 브레이벵 마을은 캄보디아 내에서도 빈곤의 정도가 심한 지역이다.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마을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빈곤, 교육, 물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했다. 절대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드아시아에서는 올해 캄보디아 브레이벵 마을에 비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지원에 나섰다.

1) 마을현황

- 장소 : 캄보디아 브레이벵주 브레이벵 마을 및 인근 라오스 국경 나옉족 마을
- 마을 현황 :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브레이벵주는 절대 빈곤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사업지인 브레이벵 마을은 350여 가구 3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라오스 소수민족 나옉족들이 국경인근에 살고 있다.

- 교육여건 : 마을에는 교육시설이

전혀 없으며, 5km정도 떨어진 캄뵁스로빠이군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개씩 있다. 절대빈곤층이 많고 교육의식과 교육비 부족 등으로 250여 명의 취학 연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2) 어린이 공부방 2개소 운영현황

취학연령 아동임에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비취학 아동을 위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며, 브레이벵주 빈민마을에서는 전단계인 어린이 공부방을 설립하여 운영코자 한다.

- 목적 : 비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문자와 기초지식 습득을 통해 초등교육 목표 실현

- 운영시기 : 2011년 4월부터
- 대상 : 7세~10세 비취학아동
- 장소 및 인원 : 브레이벵마을 40명과 라오스 인근 품 크로웃 마을공부방 130명(오전·오후반운영)

3) 향후 지원 사업

위드아시아 브레이벵초등학교 건립 및 마을 지붕 개량사업, 마을 공동우물 및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부방 후원을 기다립니다.

(사)위드아시아 상임이사 혜진님
051-322-7902, 010-5145-5589

www.withasia.kr



프랑스 대학생 ‘장수 팔성사 템플스테이’ 현장

4월29일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외국인들이 내국인들도 찾기 힘든 전북 오지에 위치한 장수 팔성사를 찾았다.

이들은 프랑스 파리 동부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40여 명으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긴 여정에 동참했다. 생전 처음 보는 한국식 불교문화가 어색할 법도 한데 경내 대웅전에서 저녁예불은 물론 발우공양까지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전북대와 교류를 맺고 있는 파리의 대학교 교수들이 우연히 팔성사를 찾았다. 당시 한국방문이 처음이었던 프랑스 교수들은 팔성사에서 하룻밤을 잊지 못해

올해는 동료 교수 및 제자들과 함께 팔성사를 찾게 됐다. 특히 외국인 대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팔성사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사찰 인근 팔공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산나물로 맛깔스런 반찬을 만들어 여느 사찰에서 맛보지 못하는 다양한 사찰음식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주지 법륜스님은 “시골 작은 사찰을 연이어 찾아줘 외국인 손님들이 오려라 고맙고, 귀국해서도 좋은 기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면서 “내년에 다시 방문한다면 더욱 성심껏 대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화 모금, ‘뉴욕 불광한국문화학교’에 전달

‘세계일화는 나와우리, 온 세상이 돌이 아닌 한 송이 꽃’을 뜻한다.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 조계사 일주문에 설치되었는데, 그 때 만들어졌던 ‘세계일화 모금함’이 현재는 옥천암 일주문에 자리하고 있다. 관세음보살님의 보호 속에 자리 잡은 것은 지난 4월 20일경,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으로 현재까지 모금된 기금은 2백여 만원이다.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는 뜻에 맞게 6월 7일 ‘뉴욕 불광한국문화학교(교장 선문스님)’에 그 동안 차곡차곡 모아왔던 10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미국 정부로부터 학교로서의 정식 인가를 받았는데 운영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범스님이 마음을 내서,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인 선문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옥천암 신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구의 건너편까지 전달되면서,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교포 아이들이 언어교육과 민족문화교육을 받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을 써 준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고 선문스님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옥천암 02-395-4031



정범스님(좌), 옥천암신도회, 상인스님, 선문스님(우)

인터뷰 - 캐나다 대각사 주지 & 캐나다 승가회장 양일스님

해외포교, “목숨 바쳐 해야 한다”

세남 78세.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노장중의 노장이다.

캐나다의 불교를 대표하며 사자후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지금은 모든 일을 정리중이시란다.

낯선 땅에서 맨손으로 일군 해외포교 삼십년의 경륜과 심경을 전하는 목소리는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고 박력있었다.



캐나다에 진출하시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요?

볼티모어에서 불자들의 초청이 있었는데 통도사 월하스님께서 캐나다행을 권유하셔서 아무 연구도 없이 토론토에서 포교를 시작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얼마나 비취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왔는데 벌써 삼십년이 지났다.

당시 토론토의 상황은?

불교의 황무지였다. 너무나 황량하여 한국의 선불교를 통해 불자와 비불자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마음의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교민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신도들과 스님 사이에 벽이 느껴졌다. 그것을 나는 “문화의 벽”이라고 보는데, 허물기가 어려웠다.

그러기를 5년…… 그 과정에서 인육보살도 되어야 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기셨나요?

처음 10년간은 온갖 일을 다 했다. 신문배달, 식당청소, 야간 택시운전, 잔디 깎기 등을 해가면서 사찰 운영비를 보탰다. 언어 습득을 위해 학교에도 다녔다. 오십에 캐나다에 와서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대학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성적도 필요했는데 25년 전의 고교 성적을 인정하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도 (일부) 새로 들어야 했다. 낮에는 학업, 밤에는 생업에 쫓겼던 힘든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골병만 남았다. (웃음)

포교현장을 그렇게 부대끼면서 얻은 노하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로 목숨 바쳐 해야 한다. 혼신을 다 해야 교민들이 그 마음을 느껴 공감하고 다가온다. 작은 일도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 둘째로, 자기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설법과 실제 삶이 다르면 호응하지 않는다. 이점은 아주 중요하다.

셋째, 불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불교문화를 포교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는 해외포교사와 현지 주지스님들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부터 현지의 문화와 언어습득을 어느 정도 이룬 후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인 포교도 계속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캐나다 이주 3~4년 후부터 꾸준히 해왔다. 현재 약 20여 명의 현지인 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참선법회, 연 1~2회 한국 템플스테이 또는 용맹정진을 하고 있다. 지도법사를 네 명 두고 있는데 자격은 3일 용맹정진 10회, 7일 용맹정진 3회 그리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현지인 포교를 위한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우선 정직해야 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솔직한 모습이 필요하다.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다 떠나버린다. 그 다음으로는 부단한 수행정진이다.

캐나다 승가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Sangha Council of Buddhist Ministry라고 한다. 1997년에 캐나다 소재 100여 개 불교사찰들이 함께 발기하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 사찰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자문, 촉사, 법문 등의 요청을 받고 있다. 말하자면 천주교 용어로 표현하면 캐나다 불교계의 주교와 같은 역할이다.

많은 일을 성취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나는 현재 모든 것을 내놓은 상태다. 이쯤에 국적도 모두 버렸고 사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도 모두 부탁해 놓은 상태다. 모든 걸 놓으니 잡념이 없어 행복하다. 날아갈 듯이 시원하다.

대담 및 정리: 이종권(편집위원)

캐나다 대각사 +1-416-588-3251 www.daekaksaofcanada.com

필라델피아 화엄사, 서예 강좌 14년째 순항

필라델피아 화엄사(주지 법장스님)의 서예강좌가 14년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화엄사 부설 송정 서도회에서 법장스님의 지도로 진행되는 서예강좌는 1997년 법장스님이 Philadelphia Museum of Arts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직후 시작하여 꾸준히 이어온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미주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강좌는 수강료를 받지 않으며, 불교인 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자비사상에 기반을 둔 문화포교의 일환으로 큰 반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타종교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예강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발심을 하게 된 회원들도 있다고 한다.

법장스님은 “우리 문화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을 뿐더러 한인들의 정서가 메달라 있어, 정서적인 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인들이 서도를 통하여 마음 수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서예강좌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서예강좌는 법장스님으로부터 전주에 받은 채본을 일주일간 연습한 후 그 성과에 따라 개인지도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님의 평가에 따라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2003년부터 꾸준히 서예 지도를 받고 있는 지문자님은 “이 강좌를 통해 사군자와 천자문을 마치고 해서를 익히고 있다”고 소개하며 “먹을 갈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며, 글씨를 쓰면서 삼매에 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불교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1973년 한국불교 미술전을 시작으로 1978년 한국전시미술 대상전 등 많은 전시회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개인전을 통하여 불도와 서도를 함께 펼치고 있는 서예가이다.

필라델피아 화엄사 +1-215-489-1118

아틀란타 전등사, 청소년 장학금 수여 및 수학여행

아틀란타 전등사(주지 마야스님)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선발하여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모든 장학생과 학부모가 여행을 다녀오는 연례행사이다.

마야스님은 “지난 1년간 한글학교에 개근한 학생들에게 일인당 500불씩, 5년간 개근을 할 경우 5천불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5년 개근 1명을 포함, 도합 1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나리 전등사 어머니회장은 “전등사 아틀란타 장학회는 이민 2·3세들의 가장 순수한 시기인 유·청소년기에 불교를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을 전달하여 어린 시절부터 부처가 될 수 있는 심성을 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소개하며 “이번 수학여행은 주지스님과 장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총 34명이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여행은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 좋았다”고 평가하며 “형편에 따라 1~2년에 한번씩 장학생 선발 후 수학여행을 가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내 여행을 주로 하였지만 여건이 된다면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가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아틀란타 전등사 +1-770-923-5375

뉴욕 원각사, 기공식

뉴욕 원각사는 6월 12일 총 700만불이 소요되는 대작불사의 첫 삽을 떴다. 미동부 최초의 한국사찰로서 뉴욕시 북단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한 원각사는 1986년 대작불사를 목표로 230 에이커 부지를 구입한 후 무려 25년 만에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원각사 회주 정우스

님이 참석하여 법문 및 청사진을 공표하였다. 통도사 주지로서 소임을 마친 정우스님은 “앞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 그리고 오지일수록 더욱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그간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의 포교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 뉴욕이 필요로 한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뉴욕에서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화섭 원각사 불

사추진 위원장은 “오랜 원각사의 신도들이 불사를 위해 유언을 통해 유산을 남기기도 했다”고 밝히며 “많은 불자들의 헌신과 동참으로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개무량해 했다. 또한, “1차로 납골당을 건립한 후 불자들을 위한 동요사채 그리고 스님들의 주거를 위한 서요사채를 세운 후 전통양식에 따른 대웅전을 지으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욕 원각사 +1-845-497-2229

범경스님, 동국대 LA 캠퍼스에서 정례 법회

전 LA 고려사 주지 범경스님이 6월 첫째 주부터 동국대 LA 캠퍼스에서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를 시작했다.

동국대 LA 캠퍼스는 종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계와 연계된 포교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범경스님의 정례 법회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범경스님은 LA 고려사 주지로서 2002년부터 2011년 초까지 10년간 고려사 중창불사의 주역으로서 고려사가 남가주에서 가장 큰 한국사찰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는데 헌신하였으며, 포교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주지직을 내놓고 동국대 LA 캠퍼스에서 입학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정례법회 지도법사인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말이 종립대학이지 실질적인 불교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회는 강의실을 빌려 쓰고 있어서 여법한 불단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법회가 지속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범경스님은 “사찰의 모습은 아니어도 법회를 보는 법당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장소에서 열심히 포교하여 종립대학의 위상에 걸맞도록 불법을 펼쳐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범경스님 +1-213-435-6677

시카고 불타사, 방생법회

시카고 최대의 한국사찰 불타사에서 20년째 이어오는 방생법회를 올해에도 여법하게 마쳤다.

불타사는 6월 5일 시카고 인근도시인 St. Charles에 자리잡은 Pottawatomie Park에서 약 15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생법회를 가졌다. 매년 유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방생법회를 여는 전통을 만들어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참석자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행사준비를 총괄했던 흥인한 신도회 부회장이 말했다. 법회는 약 한 시간 가량 전세 선박에 승선하여 기도와 법회, 그리고 백중기도와 제사



를 지내고, 배에서 내려 피크닉을 겸한 점심공양과 게임, 축구시합 등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한차례씩 소풍과 레크리에이션을 겸한 방생법회는 생활에 지친 신도들의 단합과 기분전환에도 좋은 것 같다.”고 흥부회장이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방생법회에서는 물고기 600마리를 공원 호수에 풀어주었다. 시카고 불타사 +1-773-286-1551

[능인정사 신도들의 행복 수행기]

능인정사는 인도네시아에 주재원으로 온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졌으며, 15가족이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상주하는 스님은 안 계시지만 성찬스님(용인 죽전 여래향사께서 1년에 3차례 방문하셔서 한 달 가량 머물면서 교리 강좌와 수행 지도를 해 주고 계신다. 안 계신 동안에는 스님의 녹음 법문을 들으면서 법회를 보고 있다.

매년 5월 부처님오신날에는 봉축 법회 후 연등공양금의 10%를 현지 고아원에 기부하는 나눔의 행사를 갖는다. 보통 한 달 전에 고아원 원장님과 상의하여 필요 물품을 보시고 나머지는 원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부엌용품인 수저와 접시, 숟, 프라이팬, 가스 랜지 등과 전자 피아노 그리고 장학금으로 940만루피아를 보시하였다. 8월에는 열심히 수행하신 스님들께 가사와 필요한 물품을 공양 올리는 까따법회를 하고 스님께 수행을 점검 받는 시간을 가졌다.

스님이 오시면 일반 불자들은 오전 9시~오후 5시 까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오후 6시~9시까지 일주일간 수행을 하고 격일로 행선, 좌선, 일상선에 대한 수행보고를 하고 지도를 받는다. 또 다른 일주일에는 교리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12월에는 뽕짝에 있는 수행센터에 가서 5박 6일 동안 학생들이 선수행을 한다. 이 행사는 불자와 비불자를 가리지 않고

초등 3학년부터 고3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으로 능인 정사 불자들의 보시로 진행된다. 매년 25~30명의 학생들이 동참하여 위빠사나 수행을 배우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후 불식을 선택한다. 수행이 끝나면 부모님을 초청하여 학생 수행에 대한 전체 평가를 갖는다. 부모님들께서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스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발심하여 미안마로 단기 출가를 하는 불자들도 있고, 스님과 함께 부처님 8대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불자들도 있었다. 학생 수행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스님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비록 적은 수의 불자들이지만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임이다.

우리들의 소망은 불자가 더 많이 모여 스님께서 좀 더 오래 머무실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부디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글_ 신도 무상과

인도네시아 능인정사 +62-21-724-7261



해외에서 날아온 글...

네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 하지 말라

우리는 부처님을 삼계의 대도사(大導師)라고 합니다. 다만 길을 일러 줄 뿐 나 머진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저희 문수사를 방문한 불자들이 보스턴의 명소를 안내하려고 제가 알고 있던 퀴시마켓이 유명하다며 소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저희 문수사 회주이신 도범 큰스님께서 제게 한마디 하시기를 “왜 스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 해! 상대방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스님은 단지 안내만 해!”라고 꾸중 아닌 꾸중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섭섭하다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 자신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가? 혹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따돌림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 하지는 않았나?’

요즘 한국에서는 정부와 조계종 또는 사회 일각에서 소통부재의 문제가 화두 아닌 화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일방적인 정책만 남발한다면 올바른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수행자가 중생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참다운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발달한 문명 속에서도 소통의 문제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기업 근무시간의 70%를 소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며, 기업문제의 70%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예로 보통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전문가들도 공감 인용하는 이 표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광고 카피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퍼트린 것입니다. 감기약처럼 우울증 약에 쉽게 접근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과연 우울증을 감기처럼 신체질환으로 보는 관점이 타당한가. 또 우울증은 감기처럼 정말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가?’

하지만 대부분 우울증은 긴밀한 상대

와의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좌절감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 당사자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약만 먹으면 낫겠지’라는 식의 단일한 대처가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부재의 문제는 더욱 은폐되어 환자를 점점 극단으로 몰고 가고 맙니다. 따라서 ‘감기에 감기약, 우울증엔 우울증약’이라는 언뜻 간명해 보이는 공식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증상만 유사하다고 모두 동일한 병으로 취급되어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획일화된 우울증 약 만으로는 온전한 치료는 기대하기 힘들습니다. 증상 이면의 개인의 삶과 상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처음 미국으로 건너와 현지인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불교와 명상에 관심이 많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 1년 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좋아 매주 20~3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자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함께 동참한 불자가 통역을 자청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

그러나 통역을 해 주는 불자님께서 간

호사이다 보니 가끔씩 빠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럴 경우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나자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되었건 또 다른 나라이든 그 나라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스님들이 와서 포교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채식위주의 식단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많은 스님들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포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한국에서 해외에 대한 포교를 생각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시다면 이곳 현지인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수행자가 오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금강경에서 ‘신해수지(信解受持)’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소통부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글_ 보스턴 문수사 해각스님

www.munsusa.org

인도에 불교박물관 생긴다 - TNN [2011. 6. 7]

인도 -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 곧 인도 그레이트 노이다에 있는 박물관 겸 연구센터에 영구 보존된다.

지난 달 이사회에서 관계자들은 고담부드대학의 25에이커의 땅에 첨단수준의 불교박물관과 연구센터의 설립을 승인했다. 미술관 · 연구소 · 전시관 · 강의실 · 조각 전시실과 문화 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한 카페, 영상실과 넓은 정원으로 갖추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불교의 기원과 역사 등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무엇보다도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접근수단을 제공하려 한다.

고대 불교건축양식과 현대성을 통합한 참신한 개념의 디자인으로 지어지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대중을 위한 공간적 성격도 고려된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두 달 후에 시작해 18개월 내에 완성될 것이다.

현재 건축가는 국내외의 박물관, 대학 등 문화와 교육 관련 단체들과도 협력하여 자료를 모으고, 불교철학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박물관이 있는 일본 료코쿠대학과의 협력도 완성단계에 있다.

세란고르에서의 역사적 웨삭축제

- 부디스트 채널 [2011. 6. 9]

말레이시아 - 지난 6월 5일, 1천2백여 명이 산 아람에 있는 데완 뷰블리 페락 대강당에 모여 지역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는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웨삭이 공식 인정된 경이적인 사건이다.

세란고르의 도지사와 말레이시아 불광산사의 주청스님, 마하정사의 다톡 다마라타나 스님, 금강승 불교위원회의 안고 린포체 등 불교와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도지사 칼리드는 불교사회가 복지과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함을 치하했다. 칼리드는 또한 도시에 증가하는 불교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찰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행사에는 인기 있는 불교 공연 팀인 달마메신저와 보디그룹 등도 참여했다. 한편,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두아 스페이스 등이 춤을 선보였고 불광산사의 24절기 드럼 팀이 황홀한 공연을 펼쳤다.



대만에서 평화의 종 타종의식 거행

- 대만 불광산사 서울 포교당

대만 - 대만의 불광산사(회주 성운스님)가 2011년 8월 23일 오전 11시에 “평화의 종” 타종의식을 거행한다. 이는 대만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인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이해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타종의식은 대만 진먼 평화기념 공원에서 열리며 국제 유명인사가 초대되고 예술문화공연을 통해 국내외 인사의 작품전시 및 강연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종이 있는 각국의 단체들이 같은 시간의 타종식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스콧벨리에 참선센터 개원

- pressbanner. com

미국 - 스콧 벨리의 요양시설이었던 곳이 불교수행의 새로운 요람이 될 것이다. 레드우드에 있는 통찰참선센터가 5년을 기다린 끝에 글렌 케년의 한 저택을 참선수행을 위하여 구입했다.

참선센터 대표인 질 프론즈달은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고 또 잘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까지 저택 및 주변 땅이 참선과 열흘간의 묵선수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것이라고 프론즈달이 말했다. 40명의 수행자를 위한 개인 방과 화장실, 샤워 시설을 만들고 부엌과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참선방, 행선방, 사무실과 점검방을 새로 만들 것이다. 특히 저택의 2층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캔버스에 비유하며 디자인

작업에 설렌다고 프론즈달은 말했다. 주변 부지는 수생식물을 대신해 가뭄에 강한 본래 자연경관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스콧벨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21년 동안 통찰명상센터의 지도자였던 프론즈달은 이 센터에서 수행하는 불교는 미국식의 불교로써 동양의 가르침이 서양 사회에 응용되어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지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어떤 사람도 환영한다. 특별한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니다.”

2012년 5월에 첫 수행팀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프론즈달은 말했다.

여성문제를 다룰 사카디타 국제회의

- 방콕 포스트 [2011. 6. 7]

태국, 방콕 - 지난 6월 12일~18일까지 세계의 비구니, 불교학자와 일반 여성 불자들이 모여 종교수행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조건과 변화에 대해 토론하고 여성들의 불교연구와 수행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산사니 스디라스타 스님이 세운 불교센터의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열릴 것이다. “자유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여성의 시각에서 본 자유, 교도소에서의 불법교화, 고대 인도 여성 불자에 대한 입문서 등

을 다양하게 다룬다. 또 태국의 여성 수행승과 교육개혁, 태국 비구니계단의 개설, 동남아시아 여성 불자에 대한 사회종교적인 폭력과 태국 남방 상좌불교 비구니의 사회적 발전에 대해 토론한다.

‘사카디타’는 부처님의 팔들을 의미한다. 사카디타 국제협회는 세계적인 여성 불자 네트워크로 불교에서 성의 평등 · 여성 불자간 학문 교류와 수행환경 개선 및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중국 · 대만, 불교문화교류 행사 개최

- 불교재선, www.fjnet.com [2011. 6.10]

중국, 푸저우 -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3회 해협포럼 - 중국 · 대만 불교문화교류 행사”가 푸저우시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에는 국가종교사무국 부국장 장견영, 중국불교협회장 전인스님, 대만 ‘불교이사회’ 이사장 원종스님을 비롯해 국가종교국, 복건성, 푸저우시 정관계 대표들과 양국 스님 1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만 ‘불교이사회’ 이사장 원종스님은 치사에서 “중국과 대만 양측 불교계는 같은 근원을 지니고 있다”며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양안 불교계가 활발하게 교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막식 후 중국 스님들은 대만가곡 합창공연을 비롯해 무술공연 등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형예술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6월 10일 불학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승토론회에서는 불교와 사회 논리, 불교와 심리건강, 불교와 사회조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5일 동안 양측불교계 대표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안 불교계 서화전, 푸저우 산정광사 부처님 점안식 기념법회, 양안불교계 평화기원법회, 양안 학승토론회, 예술 공연 행사가 원만하게 성료되었다.



가정에서의 참선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 http://health.ezinemark.com [2011. 5.17]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과로 고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낸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불행을 느끼고 조급해져 잘 참지 못하고 건강마저 위협받는다. 참선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다. 참선은 마음 자체를 포함한 대상에 집중하는 주의력을 말하고 불교에서 유래해 수천 년 동안 수행되어 왔다. 집에서의 수행은 다른 곳에서의 수행과 다르 않다. 조용하고 작은 방 하나로도 충분하다.

◇참선의 이익

-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혼돈에서 평화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
-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기른다.
-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 건강에 좋다.
-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한다.
- 에너지를 최고로 높여준다.

◇알아차릴 네 가지 대상

- 몸 : 몸의 움직임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살피기
- 느낌 : 기쁘거나 불쾌하거나 무덤덤한 감정을 알아채기
- 마음상태 : 행복하고 슬프고 고요하고 들뜬 마음의 상태
- 정신구조 : 마음속의 개념, 생각들

집에서 하는 참선은 시간이 여유로울 때 아무 때나 집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선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환경을 창조하게 하여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한다.

집중조명

뉴 카담파 전통, 세계에 천개의 선센터를 열다

[위키피디아]

뉴 카담파 전통-국제카담파불교연합(NKT-IKBU)은 1991년 영국에서 게쉴 켈장 가초스님에 의해 창립된 불교단체로 현재 40여 개국에 200개의 센터와 900개의 학습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설립자인 게쉴 켈장은 티베트를 나온 후 인도에서 18년 동안 안거수행을 했고 스승인 트리장 린포체의 요청을 받들어 영국 문수선원에서 경전을 가르쳤다. 1987년 스코틀랜드에서 3년 안거 동안 다섯 권의 책을 저술했고, 이후 NKT-IKBU재단을 세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사회와 삶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라는 게쉴 켈장은 “불자들의 순수한 수행을 격려하고 싶다. 불법을 이론으로만 알아서 수행치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식만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NKT-IKBU는 티베트불교의 선지식인 아티샤와 종카파에 근거한 켈룩파의 가르침을 게쉴 켈장의 저서를 통해 배운다. 곧

켈룩파의 프라상기카 중관사상의 연기와 공관이 그 핵심사상이다. 교육내용은 일반 교육, 기본교육과 지도자양성교육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교육은 불교의 사상과 참선입문에 관한 것이고, 기본교육은 게쉴 켈장의 논서 6권을 학습하고 그룹토론과 함께 시험을 본다. 지도자양성교육은 NKT의 가장 의욕적인 교육과정으로 지도법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게쉴 켈장의 교재를 공부하며 5계를 받고 참선안거의 참여와 매월 교수법에 대한 학습이 포함된다.

특별행사로는 매년 개최되는 불교 NKT 축제(가)가 있다. 봄과 여름축제는 영국의 문수선원에서, 가을축제는 영국 밖의 여러 장소에서 열리며 총지도자가 설법과 관정을 내리고 원로 NKT 지도자가 참선을 점검하며 독경과 법회 그리고 안거를 한다. 2천~6천여 명의 세계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게쉴 켈장 이외 서양인 제자인 스님과 일반인 법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모든 교육

에 참여한다. 게쉴 켈장은 불법을 전파하는데 있어 서양인 지도법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한 사람의 완벽한 지도자는 1천 명의 깨달은 제자의 가치에 상응한다고 말했다. 재가 신자도 스님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NKT의 특징이다. 이는 티베트 켈룩파 불교가 서양에 응용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도법사는 지도자양성과정 외에도 국제 지도자양성교육에 매년 참여해야 하고 16년 교육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육 받는다. 스님과 일반 지도자가 4년 동안 성공적으로 가르쳤을 때 각각 Gen과 Kadam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NKT-IKBU의 회원은 8천명에 달하고 있고 2백여 개의 소속 센터는 독립적인 자선단체고, 9백여 곳의 지역회관이나 주민단체에서 매주 모임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분원들은 전단지들을 만들어 각 지역에 NKT-IKBU를 알리는데, 이러한 막강하고 활발한 광고는 NKT-IKBU의 획기적인 성공을 이끌어 냈다. 또 다른 성공요인은 거의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점이며 다른 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약간의 도움을 주거나 활동을 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새로운 분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게쉴 켈장을 포함하여 NKT-IKBU도 분원을 소유하지 못한다.

세계에 카담파 절을 세우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게쉴 켈장의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카담파 절을 세우겠다는 원력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인 보시와 국제불교 축제의 수입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남부 스페인에 NKT-IKBU 최초 카담파 호텔도 지었다.

티베트 여성수행자의 열반

- Huffington post [2011. 6. 9]

미국, 캘리포니아 - 인도의 작은 공원이나 유럽의 병원 등 그녀가 나타나는 곳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단아한 그녀에게 끌려 누구인지에 대해 묻곤 한다. '티베트의 삶과 죽음'의 저자 쇼갈 린포체는 칸드로저링 초드로를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성수행자이며, 그녀를 보면 깊은 신심과 수행이 인간 정신에서 무엇을 창조해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녀의 겸손함과 마음의 아름다움, 빛나는 단순함, 맑고 부드러운 지혜는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운둔의 엄격한 수행의 삶에도 모든 티베트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5월 30일 프랑스에서 열반했다. 그녀는 평화로운 티베트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 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의 하나이다. 1929년 티베트 동부 산악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젊은 시절 흑백사진에서 당당하면서도 부끄러움을 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시절의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예의 바르고 내성적이었으나 천성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밝은 독립심 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녀의 삶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드라마틱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신비로움 면서도 잔인한 동화 같다. 1949년 20세기 티베트에서 초종파운동으로 유명했던 큰 스님 잡양 켄체 초기 로드로의 부인이 되었다. 1955년 중국이 티베트를 무너트리자 평범한 순례자로 위장해 말을 타고 히말라야를 넘어 시킴왕국에 도착했으나 초기 로드로는 건강악화로 열반했다. 그녀의 나이 30세 때다. 티베트인들은 그녀가 평생 높은 자리에 앉아 설법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모습만으로도 교훈을 주는 숨은 선지식이라고 생각한다. 늘 겸손하게 침묵을 지키는 모습은 아상이 없는 위



대한 깨달음의 자연스러움으로 생각되었다. 칸드로가 하는 모든 것에는 기품과 위엄이 어려 있었다. 겸손과 침묵에도 그녀의 모습에 감동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때때로 그녀의 지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순수함, 천진함과 사랑을 내뿜으며 순간에 항상 온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의 겸손함은 모두를 편안케 했다. 누구도 그녀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 마치 대자연의 위대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을 마주 대한 듯 경외감이 들었다.

30년 이상을 시킴에 있는 초기 초드로의 사당에서 혼자 살았으나 조카인 쇼갈 린포체의 청으로 유럽에 정착함으로써 티베트에서 존경받는 큰스님의 아내로 시작해 인도에서의 피난민으로, 마침내 유럽에 이르는 삶의 둥근 원이 완성되었다. 정식으로 설법을 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사물을 꿰뚫는 듯 명확했고 그래서 예언을 하는 듯 받아들여졌다.

그녀의 유머감각은 전설적이었다. 처음 배운 영어 중 naughty girl은 마음에 뭔가 생각날 때마다 즐겨 사용했다. 그녀를 보살피던 사람들은 그녀의 장난스러운 성품을 존경했고, 티베트에 두고 온 친구나 재산에 대해 아쉬워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티베트가 처한 운명에 대해 한탄하는 말에는 단지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위대한 수행자가 그렇듯 제자와 가족에 둘러싸여 밝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열반했다. 그녀의 모범적인 삶과 정신이 가르침의 빛이 되었다.

미래는 아직 아프지 않지만 ...

- 매튜 리처드, 뉴욕 타임즈 [2011. 6.23]

네팔 - 네팔 카투만두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산꼭대기에 있는 내 오두막집 앞에 앉아있으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히말라야 산의 높은 정상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장엄한 산 속에 40년을 지낸 나는 히말라야 산과 티베트고원에 기후변화가 일으킨 황폐함이 민감하게 느껴진다.

히말라야 산 주변에 사는 티베트인, 네팔인, 부탄인들은 방송매체의 접근이 어려워 지구온난화라는 말 자체는 생소하지만 호수와 강이 전에 비해 얇고 겨울기온이 상승하며 봄에 꽃이 일찍 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내가 9년 동안 살았던 아름다운 왕국 부탄의 유일한 빙하학자 카르마 쏘엠편은 “루나나 지역의 두 빙하호수 사이의 천연 빙퇴석 댐이 2003년에는 깊이 74m였던 것이 현재는 겨우 31m에 불과하다. 만약 이 댐이 무너지면 푸나카와 왕디계곡에 물이 휘몰아쳐 어마어마한 피해와 인명손실을 일으킬 것이다. 네팔과 부탄에는 400개의 빙하호수가 있는데 자연 댐이 무너지면 계곡 낮은 곳의 마을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면 빙하는 점점 사라지고 강과 계곡에 물이 줄어 가뭄이 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티베트고원의 4만개의 크고 작은 빙하

도 북극과 남극보다 서너 배는 빠르게 녹고 있다. 국제 개발국에 의하면 “중국의 절반 및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이 티베트고원에서 내려오는 강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데, 강이 말라가는 것은 이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히말라야에서 보듯 우리의 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구의 상위 5%의 무절제한 소비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요인이다. 무절제한 소비는 나 이외의 존재와 환경이 사용가능한 도구나 소비재로 인식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태도는 불행을 낳고 다른 생명과 환경에 대해 이기심과 교만을 키운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 연기는 불교의 근본사상으로 진리의 본질과 지구적 책임감을 일깨운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예외 없이 고통을 피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러한 이해는 박애와 자비의 근간이 된다. 자연스럽게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에 비폭력의 태도와 행위에 이르게 한다.

- 매튜 리처드는 40년 전 세포 유전학자였으나 히말라야에서 스님이 되었다. Karuna-shenchen을 세워 아시아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배구경기로 만난 이주민, 국경 없는 흥겨운 잔치”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뜻 깊은 시간 보내

지난 6월 19일, '제 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이주민배구큰잔치'가 양천구 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마하이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지관스님)가 주최하고 마주협 서울·경기 회원단체연합회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 주관하였다. 마주협은 이번 '이주민배구큰잔치'를 통해 아시아불자들의 건전한 만남을 제시하였고, 이주민 법당을 중심으로 한 각 커뮤니티의 내적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불교계 이주민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컸다.



행운권 추첨

아시아 9개국 10개 팀이 출전한 이 대회에는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한국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스리랑카 노무관, 문화원 이사장, 이주민 법당의 네팔 우르겐 스님, 몽골 바트보양 스님, 미얀마 우드라 스님, 스리랑카 담마끼띠 스님, 캄보디아 린사로 스님, 태국 주스님, 배구대회 후원 사찰 주지스님 등이 참석하여 관객들과 함께 배구경기를 관람하고 응원을 보냈다.

예선 리그전에서 우승한 네팔, 몽골, 미얀마, 한국팀(양천구 배구연합회), 캄보디아는 결선 토너먼트 경기를 펼쳤고, 캄보디아와 한국팀이 결승전에서 만나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승을 향한 명승부를 펼쳤다. 30여 분간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었고, 뒷심을 발휘한 캄보디아가 세트 스코어 2대 1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캄보디아 팀 주장으로 활약한 쉼스킴(25)씨는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전날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힘든 가운데에도 열심히 잘 해 줘 우승할 수 있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배구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천구민체육센터 옆 공원에서는 8개국 아시아 음식 축제도 함께 진행되어 양천구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아시아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되

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이 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육행사로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인 이주민 체육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02-720-7095

꿈을 이루는 사람들 -

“그토록 원하던 결혼식, 이제야 올렸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스님)’은 이주노동자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 향상,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증진 및 삶의 활력소를 주고자 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총8개국의 부부들이 구미역사 컨벤션웨딩홀에서 제 3회 이주노동자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결혼 한 캄보디아 부부 리행(남편, 35세)과 쉼시웅(아내, 29세)의 경우 결혼을 약속한 것은 2년이 넘었지만, 본국 부모님의 지병 때문에 버는 돈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고, 맏이인 리행 밑으로 5남매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 결혼 자금 마련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연 외에 본 행사를 통하여 식을 올린 부부들 간에는 여러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신 구미불교전통사찰협의회 회장 법성스님은 “힘든 생활환경



으로 결혼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보면서 이렇게나마 식을 올려주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합동결혼식 의상과 메이크업 등 모든 부분을 무료 지원한 사랑이야기의 정태영 대표도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울 생각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이번 합동결혼식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이나마 경주로 신혼여행을 떠남으로서 원만한 결혼생활과 일상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054-443-0755

국제포교사회 -

이주민 한국문화 체험 City Tour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5월 22일 이주민들을 초청하여 서울 시내 일원의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한국문화 체험 City Tour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이주민에게 한국불교의 자비정신과 평등사상을 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로서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봉은사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한강 유람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캄보디아 유학생인 표씨는 “서울에 있어도 잘 알지 못했는데, 봉은사처럼 큰 절도 가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여



러 가지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출신의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가족 등 72명이 참석하였다.

국제포교사회 02-722-2206

불교와 이주민, 그것이 알고싶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불자 이주민이 있나요?

2011년 6월 현재, 한국사회에는 126만 5천여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이 아시아출신이며, 이들 중 불교국가에서 오거나 불교신자인 경우가 많다.

2007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다문화지도”를 살펴보면, 이주민의 31.5%가 불교신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현재의 수에 단순적용하면 398,476명 약 40만명이다.

불교계가 이주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글_ 남춘호(마주협 팀장)

▶ 다음호 주제는 “불자 이주민의 종교생활”입니다.

미등록 체류자와 그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 및 대안

지난 6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양천면 양곡리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김포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법당 보타사’에서 있을 법회를 준비중이었다. 그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미등록체류자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종,

언어, 피부색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체류자의 단속과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는 주말단속, 길거리단속은 피부색으로만 판단하는 인종차별적인 단속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단속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인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단속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적 행사로 인한 폭력, 폭언, 탈취 행위 등이 발생하므로, 출입국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도의적 차원에서 법당 등의 종교기관을 표적 단속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민 정책과 외국인력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글_ 남춘호(마주협 팀장)